

명 시설 양적 성장 조계종 복지사업 특정분야 편중 함

최근 2년간 정부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조계종 산하 복지시설이 25% 이상 증가, 불교 복지활동이 눈에 띄게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이용시설(복지시설에 설치 않으며 이용하는 시설) 편중현상과 복지 인력 수급체계 확보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 2년여 동안 서울 공동복지관, 의성노인복지관, 동여수노인복지관, 서울광진노인복지관 등 17곳의 복지시설 운영권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따냈다. 이로써 2년간 재단 산하 복지시설은 67개에서 84개로 늘었다. 약 25% 증가한 수치다.

이 기간 중에는 장애인복지시설 증가가 두드러졌다. 영주장애인복지관, 경주장애인복지관 등 최근 2년 새 4곳이나 늘어났다. 따라서 그 동안 소외분야였

던 불교 장애인복지가 큰 활력을 띠게 됐다.

조계종 복지사업에 대한 사회적 평가도 크게 높아졌다. 서울 은평노인복지관, 서울노인복지센터 등은 지난해 서울시가 실시한 조사에서 이용자 만족도 최고의

집으로써 여성, 노숙자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복지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위탁받은 이용시설 107곳 중 31곳이 노인시설이라는 점이 이런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정 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일

반 이상이 서울 등 7대 대도시에 편중된 것도 문제다.

복지 인력의 공급과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불교 복지의 마인드를 가진 전문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교육체계와 시설이 전혀 없다"며 "이를 통한 복지 인력의 지속적인 확충과 복지시설 간의 상호 네트워크를 통한 불교적인 복지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이외에도 전문가들은 그룹홈 등 소규모 복지사업 활성화,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발굴 육성 등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이호걸 총무부장은 "시설간 네트워크나 인력양성 문제는 오래전부터 고민해 왔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때 이런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시설 25% 증가·장애인복지 관심 높아져 가정폭력 피해여성·미혼모 보호시설 전문 복지인력 수급 체계화·후원자 발굴 필요

복지시설로 선정됐다. 대전 서구노인복지관도 2002년 국내 복지관으로는 처음으로 ISO 2000 인증을 획득, 불교 복지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복지관 위주의 수탁이 이루어

지보호시설, 미혼모 보호시설 등에 대한 불교계 지원도 거의 없는 상태다. 보호자가 없는 어린이와 노인 등을 일반 가정에서 수용하는 형태의 그룹홈 200여 개를 운영하는 가톨릭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실정이다. 전체 복지시설의 절

개정 시급한 불교관련 법률들 정부 조직법 개정안 계기 문제점 살펴본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이 불교계 권익을 침해하고 있는 불교 관계 법률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의사를 거듭 밝히고, 또 한나라당 고홍길 의원이 13일 문화재청을 문화유산청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시급히 개정돼야 할 불교관련 법률을 짚어본다.

▶문화재청 차관청 승격 = 고홍길 의원은 이날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국가정책을 보다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급 기관인 문화재청을 차관급기관인 문화유산청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개정안 제출 이유를 밝혔다. 조계종은 불교전통문화유산의 효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문화재청이 재산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조항에 소속대표단체를 배제함으로써 불교계 내부 분쟁에 대한 정부개입을 규정하고 있다. 조계종은 문제가 있는 전통사찰의 주지를 문광부장관이 임명할 때 반드시 소속대표단체(조계종 총무원장)의 사전 동의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계 관계자들은 또 국가가 전사법에 의해 규제를 받는 사찰의 토지를 수용할 때는 소속대표단체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삽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문화재보호법 = 현재 시행령이 명시된 문화재위원회 구성 규정을 시행령이 아닌 모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그레아만 우리

불교계, 문화재청 차관청 승격 요구 전통사찰 재산권 침해·분쟁 정부개입소지 국토이용관리법 경내 건축행위 원천 봉쇄

적 관리를 위해 문화재청의 차관청 승격을 계속 요구했으며, 노무현 대통령도 선거 당시 이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전통사찰보존법 = 법률 가운데 불교와 가장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면서도 문제가 많은 것이 바로 전통사찰보존법(이하 전사법)이다.

먼저 전사법 제6조에는 '부동산의 대역, 양도 또는 담보 제공의 행위시 소속 대표단체 대표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해 놓고도 11조에 '주지의 재산 취득 금지' 조항을 삽입시켜 놓음으로써 이미 종단의 통제를 받고 있는 사찰의 종교행위를 이중으로 규제하고 있다.

전사법 제7조 재산목록 작성 비지 조항은 문화재의 경우 문화재청이나 시도에 등록을 하도록 소속종교단체가 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12조에는 '전통사찰 주지가 법의

문화재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불교계의 문화재위원회 참여가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분과위원회 설치 규정에 종교 관련 문화재 분과위원회를 신설해 불교문화재의 효율적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토이용관리법 =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사찰 경내지에서 건축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것도 시급히 개정돼야 할 법률이다. 국토이용관리법 15조와 동법 시행령 17조에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사찰 경내지에서의 각종 시설물 설치와 종교용지에 한정하고 있어 전통사찰 등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종교용지로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건축 승인을 받아야 하나, 국토이용관리법을 무시한 승인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이는 사찰의 고유한 활동까지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법흥 스님

입적한 두 스님 행장

고봉 스님

10일 열반에 든 혜은당 법흥(佛興堂 法弘) 대종사. 대한불교 원효종 8, 9, 10대 종정이라는 이력에 걸맞는 수행력으로 스님과 불자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온 큰어른이었다. 특히 1971년 목단스님으로부터 제10대 동국율사의 법맥을 이은 율사로 더욱 잘 알려져 있다.

1915년 5월 강원도 고성에서 태어난 스님은 9살 되던 해인 1923년 할머니 손에 이끌려 안양 삼막사에 갔다가 예불을 올린 후 출가를 발심, 행자생활

쟁을 맞은 법흥스님은 북한군이 팔만대장경을 반출하려하자 효봉스님과 함께 운몽으로 수호하기도 했다.

1951년부터 부산 금수사에 주석해 온 스님은 비구·대처의 대립으로 혼탁해진 불교계를 바로잡고자 원효종을 창종하고 초대 총무원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일본으로 건너가 현대종전통수행법인 밀교수행과 회봉수행에 전념하기도 했다. 1987년 2월 총 6권의 <원효대사사 전서>를 발간하는 등

고봉스님은 1931년 10월 23일 충북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에서 태어났다.

스님은 17세가 되던 48년 출연히 발심하여 가야산 해인사로 입산 출가하여 영월스님을 은사로, 인곡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했으며, 이때 받은 법명은 혜흥(慧興)이었다. 50년 상월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한 후 수년간 선원에서 정진했다. 58년(27세) 해인사 강원에서 대교과를 수료했으며, 이듬해인 59년(28세)에는 가야산 환적

후 71년(41세)에는 총회위원을 역임하고 73년(43세)에는 총무원 교무부장을 맡았다.

83년(52세)에는 해인총림 선원장의 소임을 맡아 선종을 진작하고 후학을 제정했으며 또한 본분 납자로서의 정진원력을 수행자의 사표가 되었으므로 대중으로부터 존경이 이어졌다. 스님은 이후 해인사 선덕으로 극락전에 주석하며 해인총림의 정진자 스승이 됐다. 스님은 2001년 벽암록의 '蒼巖

6·25때 북한군 팔만대장경 반출 운몽 저지

을 시작했다. 1925년 금강산 율사에서 일우(日宇)스님을 은사로, 운악(雲岳)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했으며, 1932년 영호(嶺湖)율사를 계사로 구족계를 받았다.

금강산 건봉사, 오대산 월정사, 보은 법주사 등 제방선원을 거처하며 참선정진에 매진했던 법흥스님은 해남 대흥사에서 한철을 날 때, "마음의 조복은 내가 하던 습관을 능히 참고 이윽고 찾게 되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이라는 김동산스님의 가르침에 발심해 시왕전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정진하던 중 환희심을 얻었다.

이후 서울 신촌 봉원사를 거쳐 환적해인사에서 여섯 번째 안거중 한국전

원효스님의 가르침을 집대성했다.

시자를 따로 두지 않고 손수 땀물을 해 입을 만큼 계율에 엄격했던 법흥스님은 열반하기까지 하루도 조석에불에 빠지지 않는 생활로 후학들에게 흐트러짐 없는 율사의 삶을 살았다.

스님은 다음과 같은 열반송을 남겼다. 一念成四大(일념성사대) 因緣聚霧散(인연취무산) 心識本來空(심식본래공) 日月澄清明(일월정명)

한 생각 사대를 형성하니 인연따라 모였나 흩어짐이 안개와 같구나

마음과 생각 본래대로 공해지니 해와 달이 밤낮없이 밝구나.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가행정진 수행자 사표, 해인총림의 스승

대에서 목숨을 내놓고 운명정진을 했다. 그 해 겨울 환적대에서 오도의 노래를 불렀다.

昨夜千萬巖盧峰(자야천만비로봉) 今覺一無大虛空(금각일무대허공) 無無無字亦無空(무무무자역무공) 幻寂臺亦幻寂空(환적대역환적공) 어제 밤의 그 많은 비로봉들이 이제 깨고 보니 본래 빈자리네 무라 하는 무자도 또한 비었으니 환적대도 환적한 공이네.

스님은 62년(31세) 응석사와 백흥암에서 일타스님 등과 함께 탁마장암에서 수선수행에 일관했다. 64년(33세)에는 포교일선에 뛰어들어 하양포교당에서 중생제도에 전념했으며 그

(벽암) 두 글자를 써 보이고 상좌 지산(智山)스님에게 법을 전했다.

스님은 13일 해인사 극락전에서 원적에 들며 다음과 같은 임종계를 남겼다. 一生難相真生(일생리상상리생) 一切諸相今際壞(일체제상금제괴) 西傳祖道誰問我(서전조도수문어) 伽耶高峰七佛峰(가야고봉칠불봉) 일생동안 상을 버리려는 상(相) 속에 살았는데 모든 상이 이제야 무너지는구나 서쪽에서 전한 조사의 도리를 누가 묻는다면 가야산 높은 봉은 칠불봉이라 하리라.

김원우 기자 wkim@buddhapia.com

새롭고 정갈한 음식

삼청동 고조선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한식 일품요리로 건강을 지킵시다

사전 전화예약 : 02) 732-7355
삼청동 우리은행 뒤편(우리은행 주차장 이용)

제1기 명상교실 회원을 모집합니다 - 범주스님의 달마선원 - (선문화예술원)

참나를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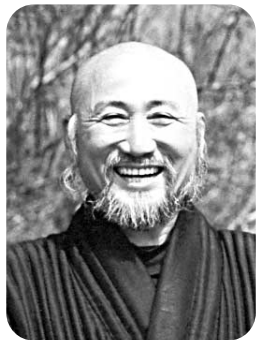
현대의 복잡한 생활환경속에서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예술과 명상을 통하여 동적인 명상으로 씻어내고 정적인 명상(참선)을 통하여 내면의식으로 들어가서 본성을 찾으며 정정한 속리산의 에너지로 마음을 비우고 재충전하여 우리의 삶이 좀 더 밝고 신명나고 행복한 삶으로 바꿀 수 있는 곳.

여기는 예술과 명상의 축제가 있는 자연속의 명상휴식처입니다.

참나를 찾아서 진정으로 사람답게 살고자하는 이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 신명나는 행사는 4월 12일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을 환희와 지복으로 만들어갈 좋은 인연의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달마선원 행사 및 프로그램

1. 명상전 마음을 열고 발심 할 수 있는 법문 법회.
2. 음악과 춤으로 동적인 명상 - 참선, 비파사나 등의 정적인 명상 자연감상과 산행의 침묵의 명상 등
3. 선묵화 배우기 (달마도 외 - 달마도의 대가이신 범주스님이 직접 지도하심)
4. 북과 소리를 통한 명상(동해의 소리) 배우기. 동해의 소리는 불교음악과 타악기가 만나서 신명나는 동명상이며 동해소리의 유일한 전수자이신 종산스님이 직접 지도하심.
5. 그 외 유명한 예술인사님들을 초청하여 특별이벤트도 가끔 열립니다.

◆ 선문화예술회원으로 가입하실 분은 아래 몇가지사항을 지켜주시시오.

- 2003년 4월 12일 토요일 명상축제 참가시 준비사항
- 1. 자기소개서 : 이름,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직업, 생년월일
- 2. 준 비 물 : 운동복, 운동화, 세안도구 등
- 3. 회 비 : ☞ 입회비 - 5만원 ☞ 강의와 숙박비용 월 15만원(1박 2일 2회) ☞ 매월 2번째와 4번째 토요일 저녁 6시부터 다음날 12시까지

※ 단 예의중요소장 등 부득이한 경우는 시간변경이 될수도 있음
※ 회비는 3개월에 한번씩 받습니다. 위의 50만원을 범주스님 계좌에 입금해주시고 본인의 사진 2장과 소개서를 4월 10일 이전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4. 계좌번호 : 우체국 704023-02-000357 이현태
5. 회원은 선착순 50명만 받습니다.
6. 문의 : 달마선원 총무 보현경 보살 TEL : 054)535-0378 / FAX : 054)535-4750
경북 상주시 화남면 동관 2리 294번지 달마선원 ◆ Homepage : dharma-art.or.kr

